



방탄소년단의 해외팬들.

# K팝 타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

'방탄소년단' 중심으로 한 K팝 번역 계정 인기

1980~90년대 한국에서 영미 팝이 대세였다. 학생과 직장인, 너나 할 것 없이 KBS FM 라디오 '굿모닝팝스'에서 흘러나오는 영미 팝으로 영어를 공부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K팝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다.

유튜브에는 한국어 노랫말이 흘러나오는 K팝 뮤직비디오 각각 자막을 달아 놓은 영상이 수두룩하다. 트위터에는 '갑자발할매' 등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한 K팝 번역 계정이 인기다.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한국어공부'가 붙은 게시물이 13만3000여개가 넘는다.

K팝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 중심에는 방탄소년단이 있다. 방탄소년단은 명실상부 K팝 라벨을 떼어낸 첫 K팝 그룹으로 통한다. 단순히 한국 그룹으로 해외 진출이 목표가 아닌 새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자연스레 세계가 무대가 되는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로 인해 한국어와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늘고 있다.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점차 팬층을 넓혀가는 방탄소년단은 어느새 하위 문화가 아닌, 주류 문화가 됐다.

한국어로 된 노래로 '빌보드 200' 2관왕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은 실제 한글 확산에 기여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들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각종 팬 증언이 SNS

에서 쏟아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펼쳐진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북아메리카 투어 피날레 객석에서는 다국적 인종이 4만여 석을 채웠는데 끊임 없이 '한국어 때창'이 쏟아졌다. 뉴욕 지하 철역에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관람을 위해 시티필드 가는 이들을 위한 한글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음악 매체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 뉴욕 시티필드 공연에 대해 "일곱 멤버들은 이전 K팝 그룹이 가지 못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다.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 대부분은 한국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10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신곡 '아이돌' 노랫말에는 '일수 좋다' '지화자 좋다' '덩기덕 쿵더러러 일수' 등 우리말 주 임새를 포함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신 팝스타 니키 미나즈(36)가 피쳐링한 '아이돌' 뮤직비디오 버전에 한글 자막을 삽입하기도 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미나즈가 뮤직비디오에 자신의 영어 랩을 한글로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영어 랩의 한글 발음을 자막처럼 넣게 됐다"고 귀띔했다.

정와대는 한류와 함께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방탄소년단에게 화관문 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일곱 멤버 평균

나이는 23.7세로, 문화 훈장 수훈자 중 역대 최연소로 알려졌다. K팝 아이돌 그룹으로는 처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가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방탄소년단은) 한류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한류를 처음 세계에 확산한 것은 방탄소년단 등 3세대 아이돌에 앞서 '동방신기' '빅뱅' '슈퍼주니어' 'JYJ' '2PM' 등 2세대다. 이들은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 유럽 등지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렸다. 그런데 메시지가 화려한 퍼포먼스와 외모가 주된 인기 요인이었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 핵심은 '메시지'다. '러브 유어셀프' 연작 앨범을 내고 같은 타이틀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니세프와 함께 한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설파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스피크 유어셀프(Speak yourself)'라는 타이틀로 캠페인처럼 번졌다. 여러 나라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다양한 인종이 'Speak yourself' 앞에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앨범과 콘서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활동이 사슬처럼 연결고리로 묶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롤링스톤은 "가사를 찾아보기 전까지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지며,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다"는 팬들의 인터뷰를 게재하기도 했다.

/뉴시스

# 익산 문화재 야행 성료... 누적 방문객 1만명

익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익산 문화재 야행이 누적 방문객 1만명에 이르렀다.

지난 7월 20일과 10월 5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개최된 익산 문화재 야행은 백제왕궁 후원산책,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전통체험, 천년사랑 소원남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통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함께 어우러져 참여한 많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줬다.

특히 지난 5일 두 번째 야행에서는 왕궁리 오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빌어보는 '천년기원 탑돌이'와 풍등에 소망을 적어 밤하늘에 날리는 '소원등 날리기'는 늦은 시간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소원등을 밤하늘에 날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 2018 익산 문화재 야행의 대미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 올해 야행은 '백제무왕은 아름다운 왕궁을 왜 익산에 지었을까'라는 주제로 밤에 비춰보는 야경(夜景),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사(夜史),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밤에 보는 공원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먹는 음식이야기 야식(夜食), 밤마루 장터 야시(夜市), 문화재에서의

하룻밤을 보내는 야숙(夜宿)의 8색을 테마로 익산시의 특색 있는 27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또한 문화재 주변 마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백제왕궁 인근 탐리마을 주민과 함께한 왕궁주막 운영, 마을경관 개선, 버스킹 공연 등 주민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도심형 야행과 다른 농촌형 야행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참여로 이뤄진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백제문화유산을 설명해주며 익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찬란한 백제시대 왕궁리유적과 세계유산 도시 익산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가 간직한 훌륭한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하고 익산의 대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익산 문화재 야행이 누적 방문객 1만여명이 찾아온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익산=우병희 기자



장수군 동호회 작품전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만남'

# 장수군,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만남' 전시회 개최

12일까지 한누리전당 전시실서

장수군 동호회 작품전 '제2회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만남'이 제2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12일까지 한누리전당 전시실에서 열린다. 개관식은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며 장수읍의 캘리그래피 동호회와 천천면 천우회, 계북면 느티나무 동호회에서 한 해 동안 갈고닦

은 노력의 결과물인 액자와 부채, 족자 등 250여점의 다양한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동호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군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렸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일상을 행복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충전 역할을 하는 동호회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웃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